

스포츠동아-대학 영화동아리 선정 2012 한국영화 "임수정과 류승룡, 송중기와 김고은이 관객의 이목을 끌었고, 대기업 투자배급사의 스크린 싸움이 논란 속에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대학생들이 바라본 2012 한국영화의 풍경이다. 스포츠동아가 올해 한국영화를 정리하며 전국 7개 대학 영화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2012년 한국영화 결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올해의 배우와 작품·감독, 한국영화 최대 이슈, 2013년 유망주까지 총 6개 부문에 걸친 질문에 대학생들은 대형 배급사의 스크린 독점, '피에타'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등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꺼낸 뒤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덧붙였다.

대학생 TICKET BOX

● 올해의 배우

여

임수정 (22.3%)

전지현 (16.9%)
조민수 (15.0%)



남

류승룡 (20.7%)

이병헌 (16.9%)
송중기 (15.0%)



● 올해의 작품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16.9%)

도둑들, 피에타, 광해 왕이 된 남자 (11.3%)
건축학개론, 늑대소년 (9.4%)



올해의 감독

김기덕 (49.0%)

정지영 · 이용주
윤종빈 (7.5%)



● 올해 한국영화 이슈

피에타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43.4%)

광해의 스크린 독점, 1000만 영화 두 편 탄생(9.4%)
광해의 대중상 15개 부문 싸움이 문제 (7.5%)



● 올해 한국영화에서 2% 부족했던 점?

대형 배급사 영화의 스크린 독점 (45.2%)

다양한 장르 영화 부족 (11.3%)
여러 장르의 영화에 주목하지 않고, 흥행기록만 화제를 모은 것 (7.5%)

● 2013년 영화계 유망주

여

김고은 (28.3%)

수지 (7.5%)
남보라 · 박보영 (15.0%)



남

송중기 (22.6%)

조정석 (11.3%)




영화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은 한해를 정리하며 '올해의 배우'에 임수정과 류승룡을 꼽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올해의 작품'으로 선정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임수정과 류승룡이 출연한 '내 아내의 모든 것'의 한 장면. 스포츠동아DB

올해의 배우 류승룡-임수정 '범죄와의 전쟁' 올해의 작품



'내 아내의...' 두 주연 올해의 배우 1위 '도둑들'에 전지현, 女 2위 존재감 입증 '범죄와의...', 1000만 관객 '광해' 제쳐

2012년 한국영화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이 선정한 배우는 임수정과 류승룡이었다. 대학생들은 임수정과 류승룡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올해 한국영화를 빛낸 배우로 꼽았다. 임수정과 류승룡은 5월 개봉한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에 함께 출연해 개성 강한 연기로 460만 흥행을 이룬 배우들. 특히 임수정은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여배우들의 활약 속에서 가장 돋보인 스타로 인정받았다. 류승룡은 '광해, 왕이 된 남자'(이하 '광해')까지 흥행하며 '존재를 재평가 받는 해'를 맞았다.

● 1위 임수정·류승룡...송중기 다크호스 '올해의 배우' 여자 부문에서는 임수정이

22.8%의 지지로 1위에 뽑혔다. 2위인 '도둑들'의 전지현(16.9%)을 가볍게 따돌렸고, 올해 각종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쓴 '피에타'의 조민수(15.0%)보다도 더 높은 표를 얻었다. 임수정은 '내 아내의 모든 것'에서 30대 여배우의 노련미로 주목받았다. 대학생들은 임수정을 두고 "물오른 연기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배우와 캐릭터가 잘 만난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2위에 오른 전지현의 활약도 인정받았다. 대학생들은 "도둑들"로 영화계에 컴백한 분위기, "늑대소년"의 송중기(15.0%)의 지지로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 톱5 배우들은 최민식, 하정우까지 30~40대가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신인이 가까운 송중기의 3위 합류는 이색적이다. 대학생들은 "로맨스 영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외모", "남자 관객까지 사로잡은 캐릭터"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올해의 여배우로 '돈의 맛' 윤여정을 뽑은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윤여정만 할 수 있는 역할이자 연기"라고 선택 이유를 밝혔다.

● 흥행과 작품 평가 엇갈리... '범죄와의 전쟁' 1위 대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작품'은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16.9%).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대부분이

신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주연 이병헌은 함께 출연한 류승룡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16.9%로 2위에 그쳤다. "다크호스" 송중기의 급부상도 눈에 띈다. 멜로영화 사상 최대 관객(665만 명)을 모은 '늑대소년'의 송중기는 15.0%의 지지로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 톱5 배우들은 최민식, 하정우까지 30~40대가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신인이 가까운 송중기의 3위 합류는 이색적이다. 대학생들은 "로맨스 영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외모", "남자 관객까지 사로잡은 캐릭터"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올해의 여배우로 '돈의 맛' 윤여정을 뽑은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윤여정만 할 수 있는 역할이자 연기"라고 선택 이유를 밝혔다.

● 흥행과 작품 평가 엇갈리... '범죄와의 전쟁' 1위 대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작품'은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16.9%).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대부분이

1990년대 초반 태생이라는 점에 비해, 당시 부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가 1위에 뽑힌 것도 눈길을 끈다. 대학생들은 "당시 시대상과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유머와 긴장을 섞어 표현했다", "20대에 겪은 후폭풍을 남겼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흥행 대박, 해외 영화제 수상 등 올해 최대 화제작으로 떠오른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피에타' 등은 나란히 11.3%의 지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대학생들은 흥행 등 대외적인 성과보다 이야기가 담고 있는 작품성에 더 주목한 셈이다. 멜로영화로 흥행 기록을 갈아 치운 '건축학개론'과 '늑대소년'은 9.4%의 지지로 공동 3위였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 흥행과 작품 평가 엇갈리... '범죄와의 전쟁' 1위 대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작품'은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16.9%).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대부분이

● 올해의 감독·화제의 인물

피에타, 베니스 황금사자상 김기덕 소신, 세계로 통했다

'피에타'와 김기덕 감독이 올해 최대 화제작이자 화제의 인물임을 다시 증명했다. 대학생들은 전폭적인 지지로 김기덕 감독을 '올해의 감독'으로 뽑았고 '피에타'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을 최고 이슈로 선택했다. 김기덕 감독은 49.0%라는 압도적인 지



지를 얻었다.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운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은 13.2%로 2위에 그쳤다. 김 감독을 뽑은 대학생 대부분은 "자기만의 세계를 소신껏 구축, 국내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피에타'의 수상도 43.4%의 표를 얻어 올해 한국영화 최대 이슈로 선정됐다. 또 다른 화제작 '광해, 왕이 된 남자'는 1000만 흥행에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최대 이슈 2, 3위에 거론됐다. 설문 참여 대학생 중 9.4%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스크린 독점 문제'를, 7.5%는 '대중상 15개 부문 싸움이'를 꼽았다. 한 대학생은 "대기업 배급사 영화가 아니라면 1000만 관객을 동원하고 영화상까지 싸울이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많은 대학생이 대기업 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무려 45.2%가 '대형 배급사 영화의 스

크린 독과점'을 올해 한국영화계 '2% 아쉬움'으로 뽑았다. "문화 소비자도 체감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형 배급사가 극장을 운영해 교차상영 풍토가 심해진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11.3%, '영화 속 의미보다 흥행 기록만 화제를 모았다'는 지적이 7.5%로 뒤를 이었다. '거장 및 신인 감독들의 활약이 부진'했던 올해 '포스트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를 떠올리게 하는 감독의 발견이 어렵다'며 "지나치게 흥행과 자본 위주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해리 기자

김고은·송중기, 2013년 영화계 빛날 셋별

2013년 영화계를 빛낼 주인공은 김고은과 송중기다. 대학생들은 '은교'의 김고은과 '늑대소년'의 송중기에게 기대를 걸고 2013년 한국영화를 이끌 유망주로 꼽았다. 김고은은 28.3%의 지지를 얻어 여배우 유망주 1위로 선정됐다. "순진한 듯 영악

한 연기가 좋다", "신비한 외모와 연기력이 결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건축학개론'의 수지는 7.5%의 지지로 2위. "평범한 듯 비현실적인 연기가 기대된다"며 수지를 뽑은 대학생이 많았다. '늑대소년'의 박보영, '26년' 한혜진 은 3.7%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송중기는 올해의 배우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유망주 부문 1위에 올랐다. 22.6%의 지지로. "외모에 가려진 연기력이 공급하다" "영화와 드라마 광고까지 모두 섭렵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11.3%로 2위에 오른 '건축학개론'의 조정석은 "재치있는 연기력이 좋다", "어떤 역할을 맡아도 모두 소화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군 복무 중인 이제훈은 5.6%로 3위를 기록했다. 이해리 기자



따뜻한 정을 나누세요
행복이 두배로 커집니다

행남자기



연예뉴스 스테이션

'선덕여왕' 김영현작가 "난 도둑 아니다...억울"

MBC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분을 쓴 김영현(사진)·박상연 작가가 입장을 밝혔다. '선덕여왕'의 김영현 작가는 26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0년 초(처음 표절 시비가 일어났을 때) 그 뮤지컬 대분을 읽어보려고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 간신히 대분을 입수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억울해했다. 박상연 작가는 "대체 우리가 그런 인물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명예회복과 표절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4일 김지영 그레이웍스 대표가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면서 MBC와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이유, 팬들에게 사과... "사고 친 주제에 살피지 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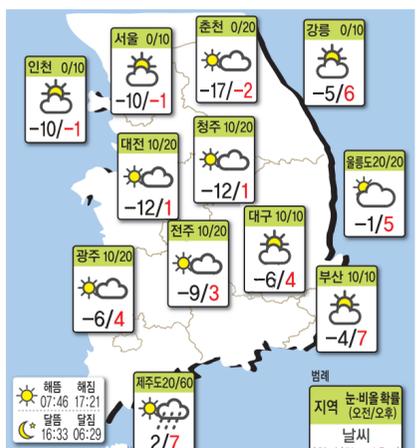
가수 아이유(사진)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은혁과의 '병문안' 인증샷 논란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유는 최근 팬 카페 '유애나'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방 문 꼭꼭 닫고 있느라 답답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물론 나가 보지는 않았습시다"고 말했다. 이어 "아 프롬유(From, IU) 쓰고 싶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세상에는 할 일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며 "맘 고생하느라 살 빠진 우리 유애나 미안, 사고 친 주제에 나는 살까지 썰서 더 미안"이라고 사과했다.

'대왕의 꿈' 최수종, 촬영 중 낙마 어깨결절 부상

KBS 1TV 대하사극 '대왕의 꿈'에 출연 중인 배우 최수종(사진)이 10월에 이어 또 다시 낙마 사고를 당했다. 최수종은 26일 오후 경복궁 문경에서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을 촬영을 하다 말이 넘어지면서 낙마했다. 이날 사고로 최수종은 어깨 결절을 입었다. 최수종의 소속사 SnH이엔티 관계자는 이날 "최근 눈이 많이 와 땅이 얼면서 말이 미끄러졌고, 위에 타고 있던 최수종도 떨어졌다"며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월 낙마하면서 다친 오른쪽 어깨가 채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부상을 당해 우려를 낳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오늘의 날씨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8일(금)	-3/3	-4/2	-3/2	1/4	0/3	7/10
29일(토)	0/3	-3/4	0/3	3/6	3/9	8/11
30일(일)	-9/-5	-11/-4	-7/-2	-3/1	-1/1	4/5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대권 대표전화 02 2020 0114
인쇄인 최영호 편집부 02 2020 1039
편집인 이정은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편집국장 양성동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광고국장 이송욱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사건부 02 2020 1068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별 12,000원, 1부 700원